

하나님이 마귀에게 패하여 마귀 세상이 되어버렸다

마귀가 지배자임을 방증하는 음양, 귀신, 내외 등의 단어들

성경을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신이 이삭에게 옮겨졌고 이삭의 하나님의 신이 야곱에게 옮겨지고 야곱의 하나님의 신이 단에게 옮겨지고 그 다음에 영모님한테로 옮겨진 겁니다. 박태선 장로님! 아시겠습니까? 박태선 장로님한테 옮겨진 하나님의 신이 해와 이간자에게 옮겨지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간자 구세주에게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일곱 번째 천사요, 일곱 번째 인을 때는 자입니다.

성경상 일곱인을 때는 존재들

아브라함이 첫 번째 인을 때는 자이고 이삭이 두 번째 인을 때는 자고 세 번째 야곱이 인을 때는 자이고 네 번째 바로 단군 할아버지가 인을 때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영모님이 인을 때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해와 이간자가 인을 때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가서 구세주 완성자가 인을 뎀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더듬어보면, 확실해, 안 확실해? 확실하죠?

영모님이 소사에다가 신앙촌을 건설했죠? 그 당시에 소사 신앙촌, 천년성 들어가서 열심히 천년성 찬송가 불렀죠? 그러나 천년성은 영모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신을 모신 몸이 천년성이요, 두 번째 이천년성이 해와 이간자의 몸입니다. 그 다음에 삼천년성이 마지막 때에 이간자 구세주입니다. 이 사람의 몸이 삼천년 성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삼천년성이 백만제단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제단이 백만제단이라고 하느냐 하면 이 제단이 소사에 있어요, 서울에 있어

요? 소사에 있죠? 흰 소(素)자, 소사에 있는 겁니다. 흰 소자나 흰 백(白)나 같은 뜻이죠? 그래서 백만제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단이 백만제단이에요.

옛날에 영모님이 백만제단 짓는다고 하고 백만제단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승리제단 짓는다고 해놓고 승리제단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이 사람더러 제단을 지으라고 해놓고는 전화로다가 이 사람한테 승리제단이라고 간판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승리제단 간판을 단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승리제단의 역사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진짜 구세주가 한국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지, 다른 나라에서는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마귀의 1차전쟁

하나님과 마귀가 1차 싸워가지고 마귀한테 하나님이 지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마귀한테 빼앗긴 겁니다. 이 세상을 마귀세상이라고 그러죠? 마귀한테 빼앗겼기 때문에 마귀세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부지간을 내외(內外)라고 그러죠? 내(內)는 여자를 가르치는 거요? 외(外)는 남자를 가리키는 거요? 또 무슨 말이 있죠? 귀신! 귀(鬼)자를 위에다 올려놓고 하나님의 신을 밑에다 놓는 겁니다. 쫓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또 양음이라고 하지 왜, 음양이라고 그러요? 마귀세상이 되어서 그러요. 아시겠어요? 음양이라는 말을 하게 된 것



구세주 조희성님

도 마귀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위에 있고 하나님이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겁니다. 또 뭐라고 그랬죠? 왜 밤낮이 라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어둠이 위고 빛이 밑으로 되어 있는 이 세상 말입니다. 밤낮! 나는 그걸 생각 못했는데, 그게 맞긴 맞구나! 그렇죠? 또 있어요? 연놈! 녀년이라 그러든지 하지, 왜 연놈이라고 그러지 왜, 흑백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마귀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격양유독에 쓰여 있죠?

마귀세상이기 때문에 사람과 만물이 죽는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마귀세상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겁니다.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고 생명 있는 만물이 다 죽어가고 있죠?

이 사람이 밑에서 이간자가 된 날 산에 나무하러 가니까 굵은 나무가 허리를 구부려서 이 사람한테 절을 하는 겁니다. 풀도 절을 하고 자그마한 나무는 작은 나무대로 절을 하고 그 다음에는 춤을 추는 겁니다. 굵은 나무 가지들이 하나는 위

로 올라가고 하나는 아래로 내려가고 이렇게 이렇게(춤추는 흉내를 내면서) 춤을 춰요. 그 광경을 보는 이 사람이 놀랐을까, 안 놀랐을까? 놀랐겠죠? 놀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간자가 나오기를 삼라만상이 고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만물은 다 하나님의 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마귀 속에 갇혀서 살다가 어느 시간이 되면 죽을 때에 하나님이 죽는 겁니다. 사람이 죽을 때에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요? 모르죠?

영이라는 건 하나님이 영입니다. 하나님이나 영이지, 마귀는 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죽어서 소멸되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서 소멸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알아야요, 몰라요? 생명과일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쓰여 있죠? 그런데 선악과가 뭔지 생명과일이 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걸 성경 아는 거예요. 성경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었는데 선악과가 뭐냐 하면... 성경 말이나 성경 말씀은 영적 말씀이라고 써야 있죠? 영적 말씀이니 영이야, 육이야? 영이죠? 영은 영인데 죽이는 영이야, 살리는 영이야? 죽이는 영이냐가 죽이는 신이죠? 죽이는 신이 마귀 신이야, 하나님 신이야? 마귀 신이죠?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죽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에 사람 속에 있는 생명인 하나님의 영을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죽는 순간 사람이 죽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 과학자들이 이런 걸 알아야요? 의학박사가 알아야요?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학문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학문이 없다! 사람이 죽을 때에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죽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이지, 사람의 몸이 죽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체계를 그 진리의 말씀대로 바로 알고 믿어야지, 바로 알지 못하고 믿으면 길을 잘못 가는 거예요, 바로 가는 거예요? 잘못 가는 거요? 그래 안 그래요?

성경에 또 십사만사천이라는 숫자 나오죠? 그 십사만사천 숫자를 인용해서 사이비종교들은 십사만사천의 의인의 숫자를 채운다고 말들을 하는데 십사만사천의 뜻이 뭘 줄 몰라서 그런 거요? 십사만사천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3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십사만사천을 3으로 나누면 나눠집니다. 3수의 약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십사만사천이 어떻게 3수를 나눠질까? 집에 가서 종이를 펴놓고 3수를 계속 나눠보세요. 3수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십사만사천의 수가 바로 3수를 가리키는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내려와서 완성자가 되어버리면 바로 이것이 십사만사천의 의인입니다.*

2003년 2월 10일 설교 말씀 중에서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참성경

《4장 요셉》

(4) 단이 아버지에게 간청하다

(4) 단이 아버지에게 간청하다

가뭇이 극심하였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온 곡식들도 이제는 바닥이 닳았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분부하였습니다.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다. 한 번 더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도록 해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몇몇번 말씀드린 대로 막내를 데리고 갈 수만 있다면 곡식을 사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만일 저번처럼 유대만 간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한 사람이 되고 염탐꾼으로 몰려 목숨을 잃을 것이 뻔한데, 왜 겁니까? 제가 베냐민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는 베냐민과 관련하여 저에게 책임을 물어 주십시오. 제가 막내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 야곱은 버럭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너희는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지껄이느냐. 공연히 동생이 있다고 하여 나를 이디지도 괴롭히는 것이냐.”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말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여러 가지로 우리 집 형편을 몰으면서 아버지께서는 아직 살아 계시느냐?”라고 묻기도 하고 또 “다른 형제들이 더 있느냐?”라고 묻기에, 우리는 그저 그가 묻는 대로 정직하게 대답하였을 뿐입니다. 그가 우리의 아우를 그리로 데리고 오라고 말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일제히 아들들이

대답했습니다.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라. 그럼 내일 이맘 때에 보자.”라고 야곱이 말하고 자신의 침소에 돌아갔습니다. 곧이어 단이 아버지 야곱을 침소에서 뵈고 20여 년 전 도단에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던 일에 대해서 소상히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요셉이 사나운 들짐승에 찢겨 죽은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요셉이 레아의 형제들을 찾기 위해 세겜에 갔지만, 그들을 그곳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브리엘 천사가 세겜 들판의 낫선 사람으로 변장하고 나타나서 우리가 찾는 형제들이 도단으로 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도단에 도착한 나와 요셉과 남달리는 요셉의 제의대로 각기 세 방향으로 흩어져서 레아의 형제들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나는 서쪽으로 향했는데 바로 세겜 들판에서 만났던 그 낫선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그때 그 낫선 사람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나는 가브리엘 천사다. 너의 아비와 라헬이 너에게 장자축복을 한 사실을 비밀로 부쳤느니라. 네가 태어날 때 장자상속을 하고 너 자신도 알 수 없느니라. 너는 낙타를 매어둔 곳, 너의 종들이 기다리고 있



단이 도단에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난 일을 부친 야곱에게 들려주다

는 곳으로 되돌아가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하시리니, 너는 너희 형제들에게도 주께서 예비하신 이 일을 발설치 마라. 기럃아르바(헤브론)의 마르페에 있는 너의 아비 야곱에게도 그리할 것이니라. 다만 요셉이 애굽을 치리하는 재상이 되거든 그때 이 일을 아비에게 고하여 너의 아비 야곱을 애굽으로 인도할 것이니라. 장래에 너의 후손에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주(主)가 나오시리라.’ 하고 말을 끝마치자마자 내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1 성경은 유대를 중심 인물로 기록했기에, 야곱으로부터 은밀히 장자상속의 축복을 받은 ‘단’에 대한 기록은 충실하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세겜과 도단 들판에서 낫선 사람(가브리엘 천사

야곱이 아들 단의 이야기를 듣고 매우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가 장자상속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하나님과 라헬과 그리고 나, 오직 이 셋이다. 그렇다면 너에게 축복한 자는 정녕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분명하구나! 그런데 어쩌하여 이제야 가브리엘 천사가 너에게 당부하던 침묵을 깨뜨리느냐?” “요셉이 애굽의 재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애굽으로 갔을 때 외국인들에게 곡식을 배분하던 애굽 총리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우리 형제 중에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저는 대번에 요셉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우리 형제들이 누군지 다 알아보았기에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면서 가나안의 가족상황이 궁금해서 세세히 캐물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친동생 베냐민을 보고 싶어 합니다. 분명히 요셉 자신은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에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갈 때 꼭 베냐민을 동반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세요. 벌써 끼니가 떨어져 우리 식구들이 다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하고 단은 아버지

야곱에게 간청하였습니다. “이제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하룻밤을 지새운 야곱은 그의 아들들이 모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갈 것을 허락했습니다. “꼭 베냐민을 데리고 가려거든 데리고 가려라. 그러나 갈 때 부대 속에 꿀과 향료를 넣어 애굽의 총리가 되신 그분께 예물로 드려라. 그리고 몇몇번 부대 속에 넣어 준 돈을 갑질로 하여 돌려 드리도록 해라. 어떻게 잘못되어 너희 부대 속에 넣은 것 같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주장하시어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주시기를 빌 뿐이다. 그가 베냐민과 더불어 거기에 남아 있는 시므온도 너희와 함께 돌려보내 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지만, 난 어떻게 하겠느냐?” 요셉의 형제들은 많은 예물과 돈을 가지고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다시 떠났습니다.

(5) 은찬

요셉은 가나안으로 돌려보냈던 자기 형제들이 약속한 대로 베냐민을 데리고 온 것을 알자 자신의 부하 관원에게 일렀습니다. “저 가나안 사람들을 모셔라. 그리고 양을 잡아 점심을 잘 차리도록 해라. 나와 같이 점심을 할 테니.” 관원은 가나안에서 온 사람들을 요셉의 으리으리한 저택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에서 탈락 걱정부터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하다. 몇몇번 부대 속에 든 돈 때문에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온 게 틀림없다. 우리의 나귀를 빼앗고 우리

들을 종으로 잡아두려나 보다.” 하고 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막 대문으로 들어 서려고 할 때 요셉의 형제들은 관원을 붙잡고 애걸을 하였습니다. “관원님! 우리는 잘못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굶주리다 못해 곡식을 사러온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곡식을 사 가지고 돌아가다 집을 풀어 보니까 부대마다 돈이 그대로 들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그 돈을 도로 가져왔습니다. 또 새로 살 곡식 값도 치르고 가겠습니다.” 관원은 빙그레 웃으면서, “각정할 것 없소. 당신네 하나님께서 그 돈을 부대 속에 넣으신 것이요. 당신네가 치른 곡식 값은 분명히 내가 받았소.”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놓이게 한 다음 그동안 가두어 두었던 시므온을 그의 형제들 앞에 데려오고 발을 씻겨주고 그들의 나귀에게까지 먹이를 주는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이제 총리와 점심을 같이 하게 된다는 이야기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요셉에게 드릴 예물을 꺼내느라고 서둘렀습니다. 요셉이 저택으로 들어오자, 형제들은 자기 나라에서 가지고 온 예물을 바치고 땅에 엎드리어 절을 했습니다. 절을 받은 요셉이 그들에게 ‘형제들은 모두 무사한가?’ 하고 안부 인사로 답례하고, “가만있자. 그대들은 늙으신 부친이 계시다고 했지, 아직 안녕하신가? 지금까지 생존하시겠지?” 하고 넌지시 물었습니다. 형제들은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면서, ‘네, 총리 각하께서 베푸신 은덕으로 편히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다음호에 계속)* 안젤라